

# 일본 장기요양케어와 관련한 살인 및 자살 실태와 정책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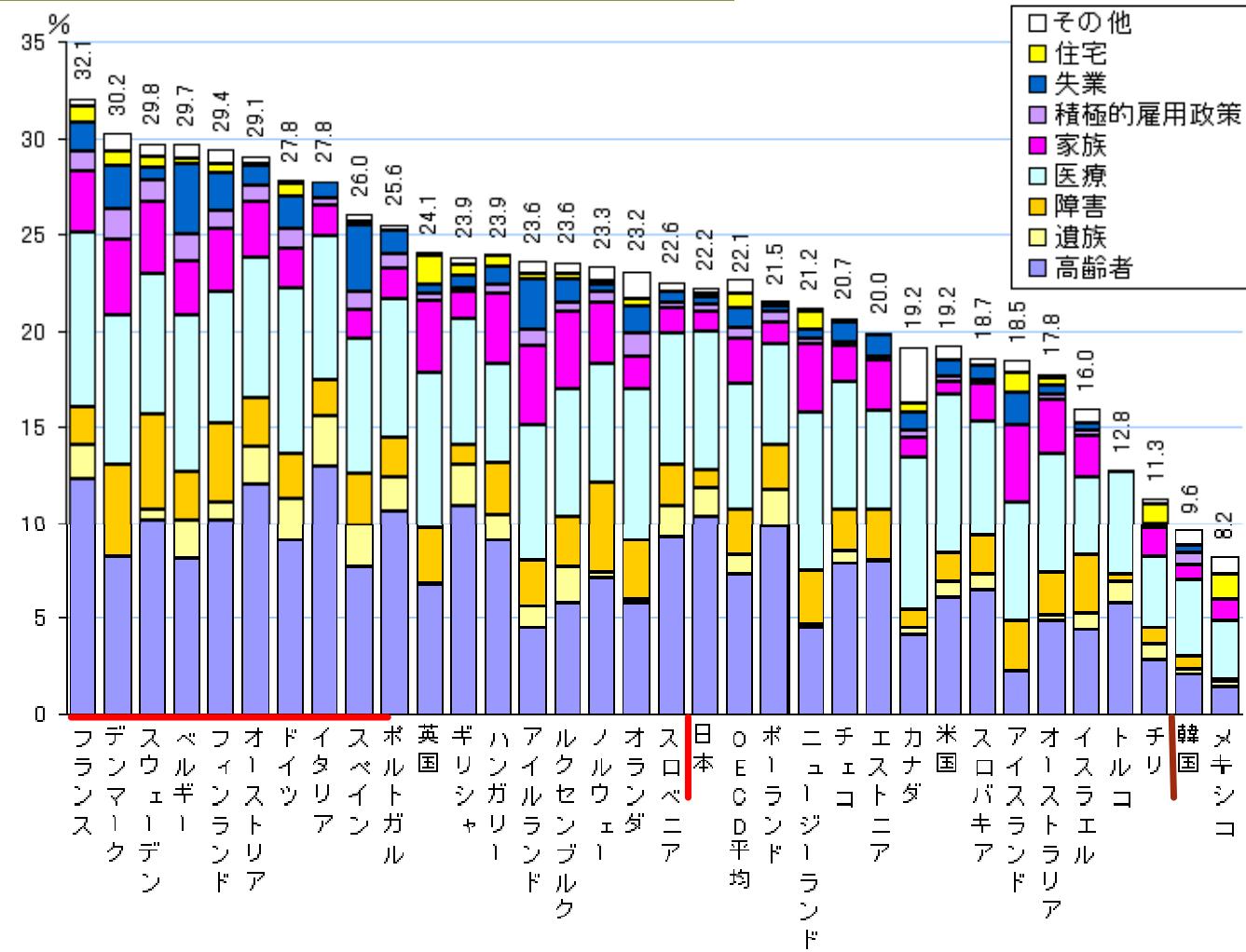
주최: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일시: 2014년 10월 7일

강사: 名寄市立大学保健福祉学部社会福祉学科

准教授 黄 京性

## 사회보장급부비의 국제비교(OECD 2009)



(注) 税や社会保険による公的支出(Public Social Expenditure)の対GDP比である。スイスはデータなし。メキシコの失業、米国、トルコ、韓国の住宅は不詳。

(資料) OECD.Stat (data extracted on 30 Sep 2013)

# 고령자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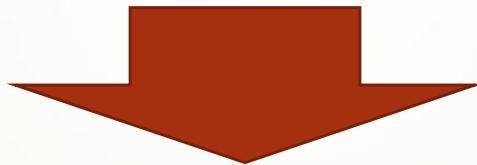
-기존 제도에 의한 대응의 한계-

개호보험제도의 개정

고령자 의료보장의 변천

지역의료 및 개호추진법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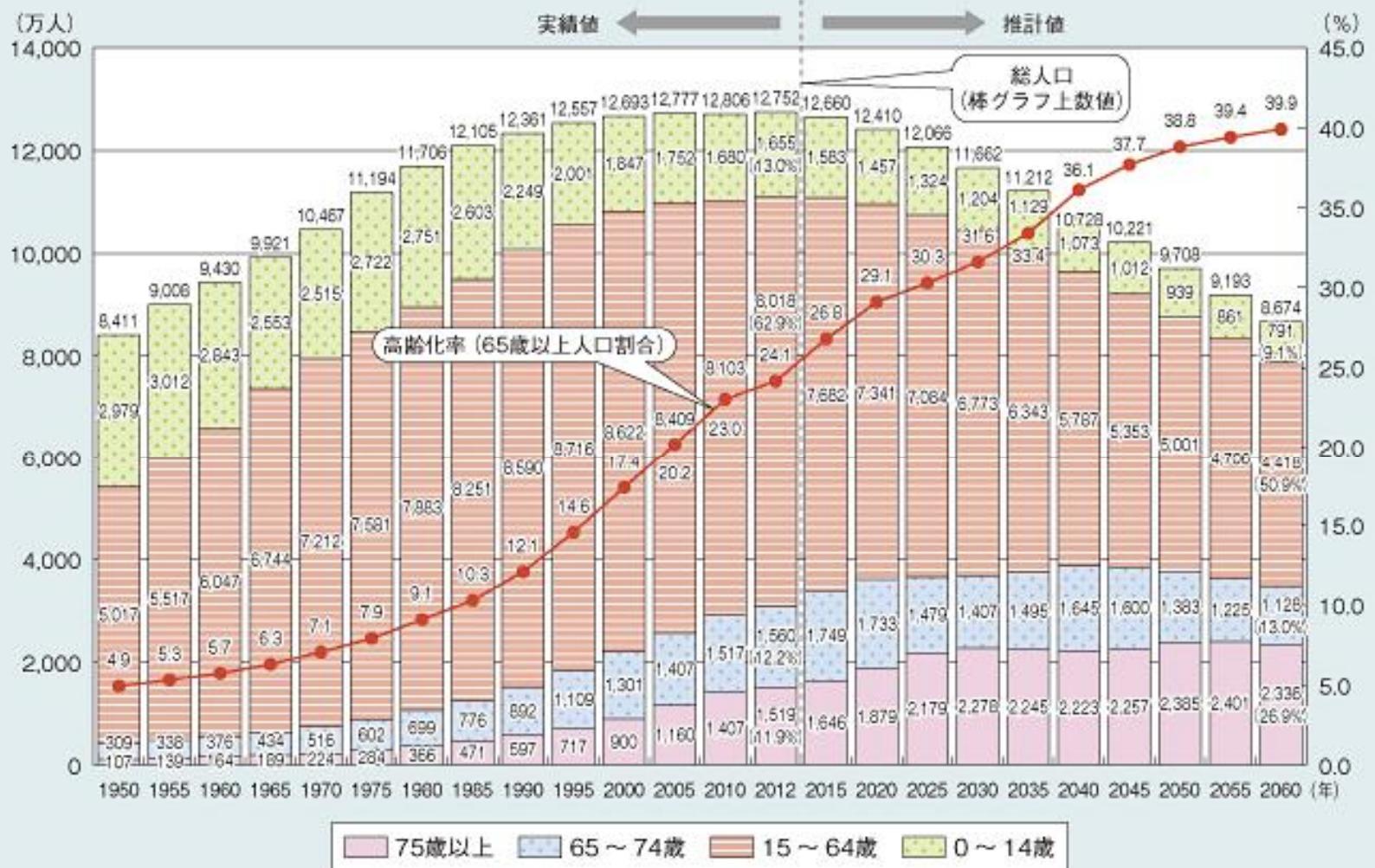
연금제도의 개혁



##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관련 정책의 최근 동향

1. 가족케어에서 사회적 케어, 사회적 케어에서 가족케어 및 지역력
2. 고령자 혜택 감소와 부담의 증가

## 일본의 고령화의 추이와 장래 추계



## 고령자 수

「団塊の世代」

2015年3,395만명、  
2042년에는 3,878만명  
으로 정점을 맞이하고  
이후 감소하게 되지만  
고령자율은 상승을 계  
속함(소자화의 영향)

2060년에는 고령화율  
이 39.9%에 이르러  
2.5명에 한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됨。

資料：2010年までは総務省「国勢調査」、2012年は総務省「人口推計」（平成24年10月1日現在）、2015年以降は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の出生中位・死亡中位仮定による推計結果  
(注) 1950年～2010年の総数は年齢不詳を含む。高齢化率の算出には分母から年齢不詳を除い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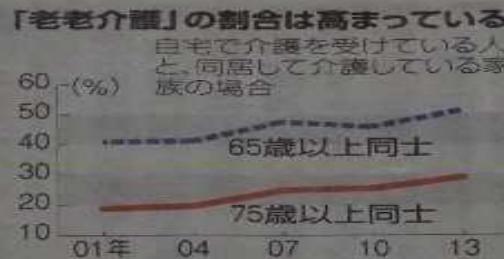
## 초고령사회 일본관련 키워드

- ▶ 2015・2025年問題(団塊世代)
- ▶ 無縁老人・老人漂流社会
- ▶ 独居老人・孤独死 (孤立死)
- ▶ 娥捨て社会
- ▶ 老老介護・介護失業・休業
- ▶ 介護殺人
- ▶ .....

朝日 14.7/16

# 「老老介護」世帯5割超

厚労省調査 子ども貧困率悪化 16.3%



相対的貧困率

世帯収入から子どもを含む國民一人ひとりの所得を仮に計算し、順番に並べたとき、真ん中の人の額(中央値)の半分(貧困線)に満たない人の割合。子どもの貧困率は、18歳未満でこの貧困線に届かない人の割合を指す。今回の調査では中央値は244万円、貧困線は122万円。

同居の家族が主に介護を担う世帯のうち、介護される人だけでなくする人も65歳以上という世帯の割合が5割を超えた。厚生労働省が15日発表した2013年の国民生活基礎調査でわかった。田塊の世代が高齢者となり、「老老介護」の広がりが深刻な問題となりそうだ。  
▼3面II細る家族の力

調査は13年6・7月に実施。介護については、原則自宅で介護されている7270人(有効回答率87%)の家族を対象にした。主に介護をする人は、同居する

家族が61・6%で最も多く、介護サービスの事業者(14・8%)、別居の家族(9・6%)が続いた。主な介護者が同居家族と回答したうち、介護する側、される側とも65歳以上

の世帯は51・2%。前回10年の調査から5・3㌽増え、この調査が始まつた01年以来初めて半数を超えた。ともに75歳以上という世帯も

フルスクリーンモードを終了するには **Esc** キー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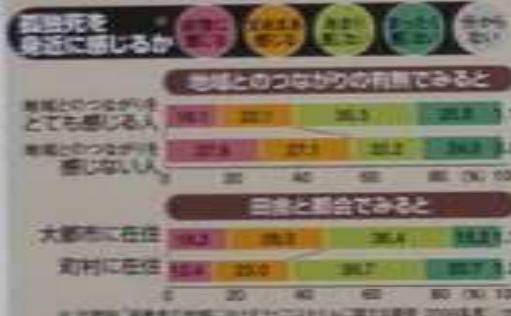


## 高齢者と孤独死

# 明確な定義なく、増加の傾向

高齢者の孤独死が問題になっています。家族や地域社会とのつながりの薄さに焦点があたっています。しかし、社会保険などセーフティネットの問題もありそうです。一方、どういう状態が孤独死なのかも定まっていません。孤独死とは?

### 地域の人間関係でみる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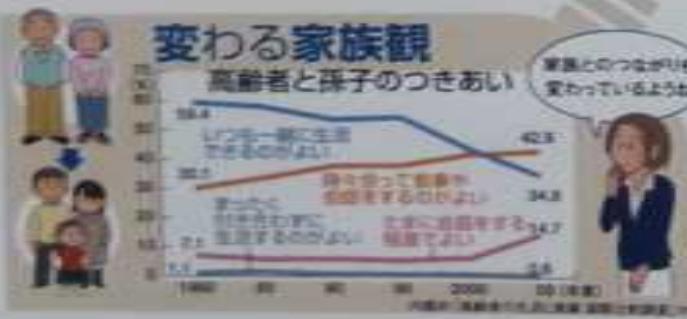


### 自治体などで対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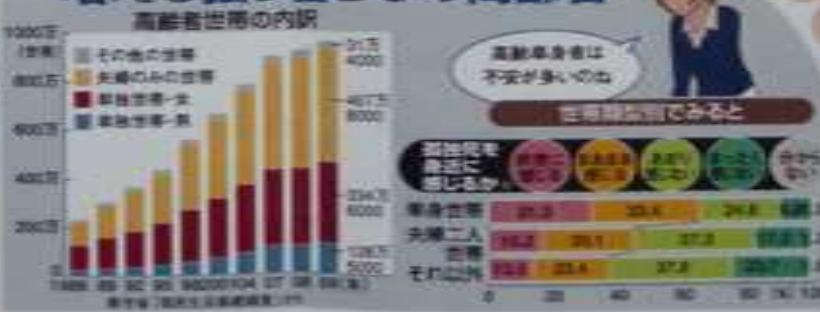


### 変わる家族観

#### 高齢者と孫子のつきあ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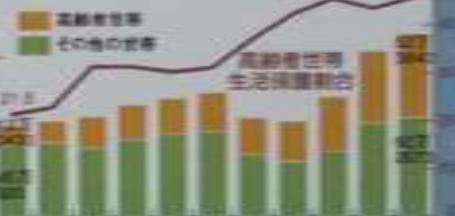


### 増える独り暮らしの高齢者



### 貧困と社会保障

#### 生活保護を受けている世帯数と高齢者世帯割合



#### 財政逼迫(ひっぱく)

年金

医療

介護

生活の不安

給付が抑制される

高齢者世帯の割合が高まると、年金や医療、介護などの費用がかかるため、財政逼迫が進んでいます。

### そもそも「孤独死」とは?

精神疾患などの疾患を持った高齢者が、誰にも見られず死んでいたことでクローズアップ

孤独死の定義はまだない

対策をするにしても、きちんととした定義が必要です。

年金受給額（単身世帯）

年100万円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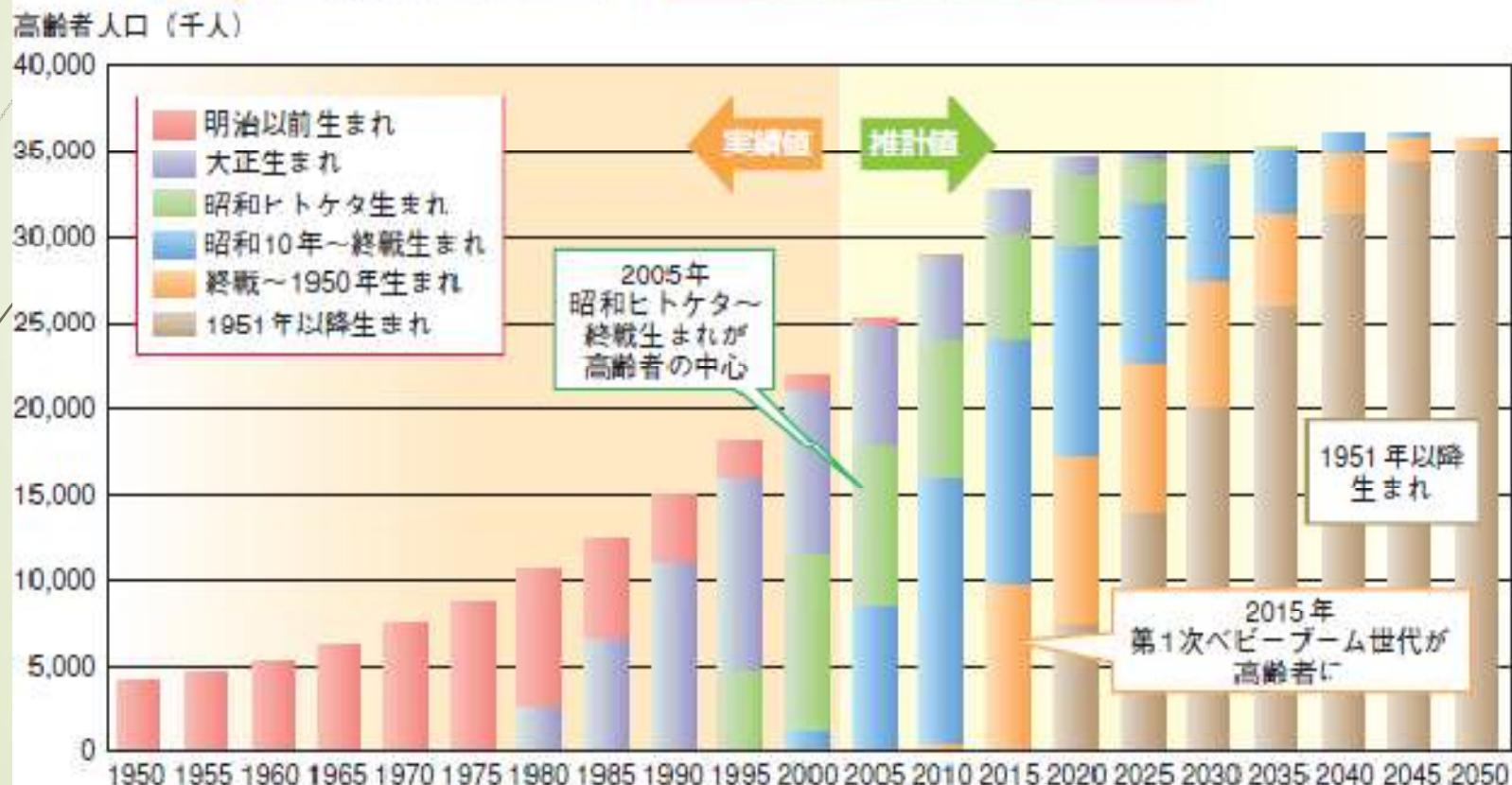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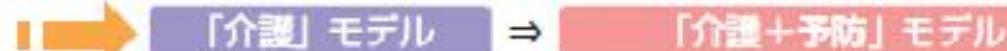
厚生労働省「年金制度基礎調査」  
比例达到到40%以上。

## 2015年の高齢者介護

(高齢者介護研究会報告書2003・06)

### ■高齢者数の急速な増加

〈対応の方向性〉



資料:2000年までは総務省統計局「国勢調査」、2005年以降は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14年1月推計)」



2000년대 초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동에 따른  
**일본의 고령자관련 사회보장의 동향의 특징**

- 케어보장, 보건의료보장,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 제1호 피보험자의 요개호도별 인정자수의 추이(2013년판)



2010年度末506만명

제1호 피보험자의 수 2010년 490만명으로 2001년도 말보다 203만명 증가

전체 第1号被保険者の  
16.9%를 차지

개호보험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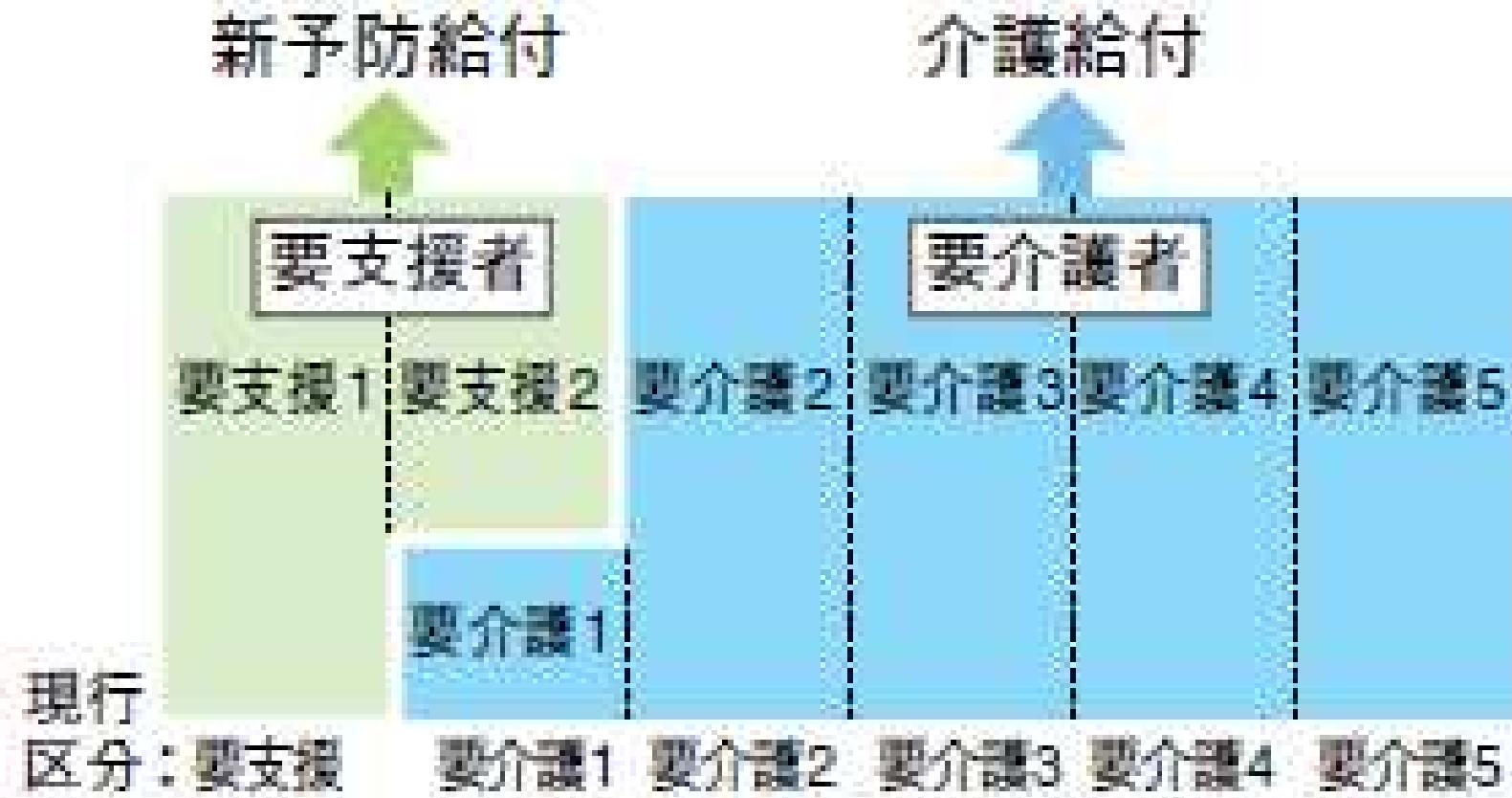
資料：厚生労働省「介護保険事業状況報告（年報）」

(注1) 平成18年4月より介護保険法の改正に伴い、要介護度の区分が変更されている。

(注2) 東日本大震災の影響により、報告が困難であった福島県の5町1村（広野町、楢葉町、富岡町、川内村、双葉町、新地町）を除いて集計した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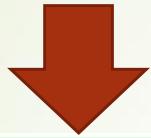
## 개보호법제도 (2005년 개정의 특징)

### ■ 保険給付と要介護状態区分のイメージ



## 2. 고령자 의료보장 측면

2006年6月 「高齢者医療確保法」2008년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誕生



[平成26年3月31日以前に70歳に達している人] 8割給付	1割 指定公費 負担	1割 自己負担
[平成26年4月1日以降に70歳に達する人] 8割給付		2割 自己負担
[現役並み所得者] 7割給付		3割自己負担

### 1. 医療療養病床의 70歳以上の入院 ホテルコスト(宿泊費、食事費)負担

医療療養型病床:慢性期의 入院医療를 필요로 하는 患者에게 의료보험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병상 . 介護療養型病床:要介護認定인정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호보험으로 제공하는 병상 필요에 따라 의료서비스도 받음

### 2. 現役所得並みの高齢者の 患者負担の引き上げ(2割 → 3割)

본래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 도입된 2008년 4월부터 70세 이상 75세 미만 高齢者 (현역 급 소득자는 제외) 는 진료비의 자기 부담분으로 20%를 자기부담하도록 되어있었지만, 그에 대한 實施는 동 결되어 부담증가분 10%는 국고에서 충당되어오고 있으나 ,

**2014년4월1일 이후에 70세가 되는 고령자부터는 70세에 달한 다음달부터의 진료분부터 20%를 자기부담하도록 됨**

\*1.2는 2006년10월부터 선행실시

### 3. 고령자 생활보장측면 年金制度の改正について

制度の創成

昭和17 ( 1942 ) 年	労働者年金保険法の発足 (昭和19(1944)年に厚生年金保険法に改称)
昭和29 ( 1954 ) 年	厚生年金保険法の全面改正
昭和36 ( 1961 ) 年	国民年金法の全面施行(国民皆年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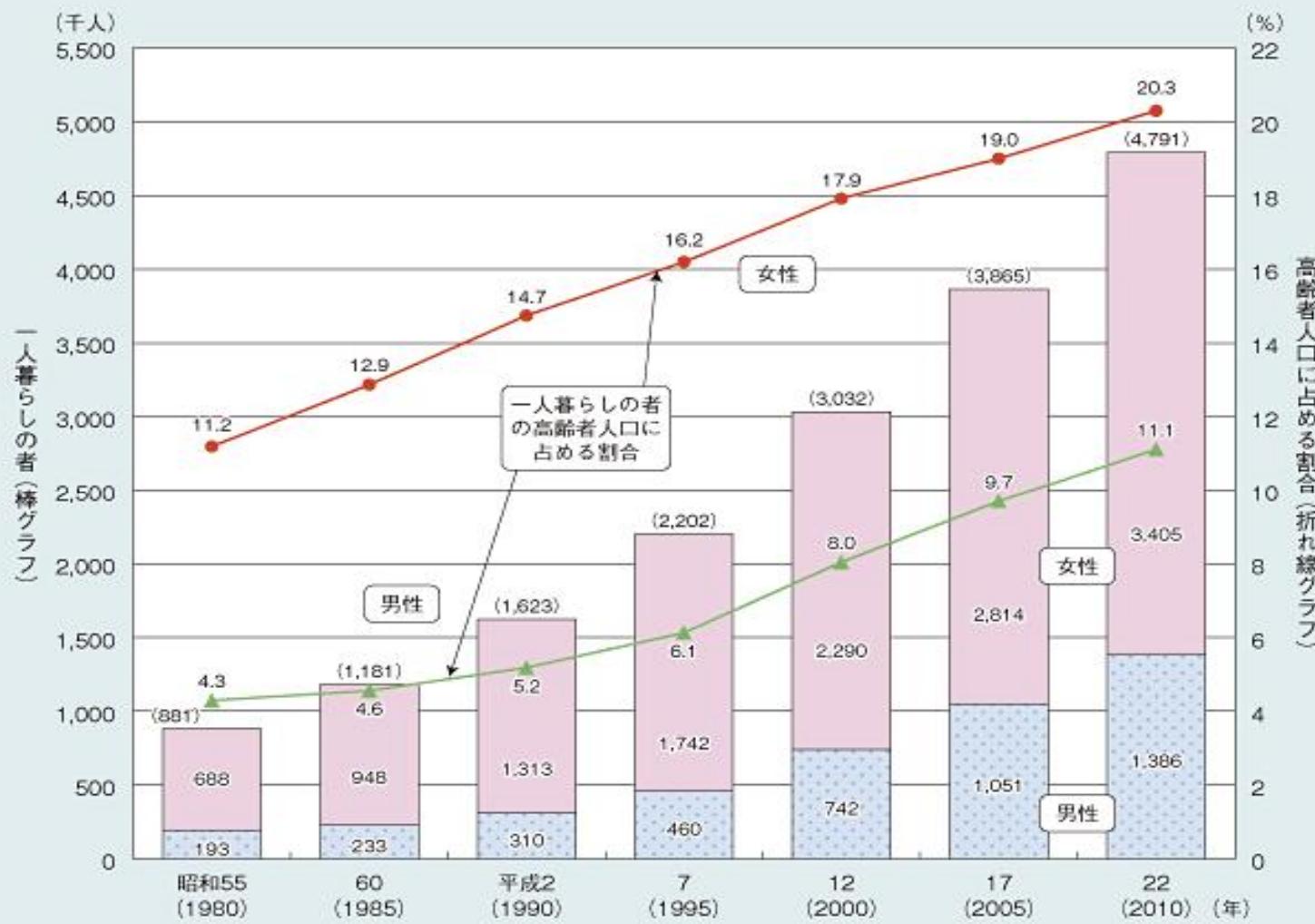
制度の充実

昭和40 ( 1965 ) 年	1万円年金
昭和44 ( 1969 ) 年	2万円年金
昭和48 ( 1973 ) 年	5万円年金、物価スライド制の導入、標準報酬の再評価等

高齢化への対応

昭和60 ( 1985 ) 年	基礎年金の導入、給付水準の適正化等
平成 2 ( 1990 ) 年	被用者年金制度間の費用負担調整事業の開始
平成 6 ( 1997 ) 年	厚生年金(定額部分)支給開始年齢の引上げ等
平成 9 ( 1997 ) 年	三共済(JR共済・JT共済・NTT共済)を厚生年金に統合
平成12 ( 2000 ) 年	厚生年金(報酬比例部分)の支給開始年齢引上げ、裁定後の年金額の改定方法の見直し(物価スライドのみ)等
平成14 ( 2002 ) 年	農林共済を厚生年金に統合
平成16 ( 2004 ) 年	上限を固定した上での <u>保険料率の段階的引上げ</u> 、マクロ経済スライドの導入、基礎年金の国庫負担割合の引上げの法定化等
平成21 ( 2009 ) 年	臨時的な財源を用いた基礎年金国庫負担割合2分の1の実現
平成24 ( 2012 ) 年	消費税収を財源とした基礎年金国庫負担割合2分の1の恒久化、特例水準の解消、被用者年金制度の一元化、厚生年金の適用拡大、年金の受給資格期間短縮、低所得・低年金高齢者等に対する福祉的な給付等

## 독거노인의 동향 (2013년판 고령사회백서)



資料：総務省「国勢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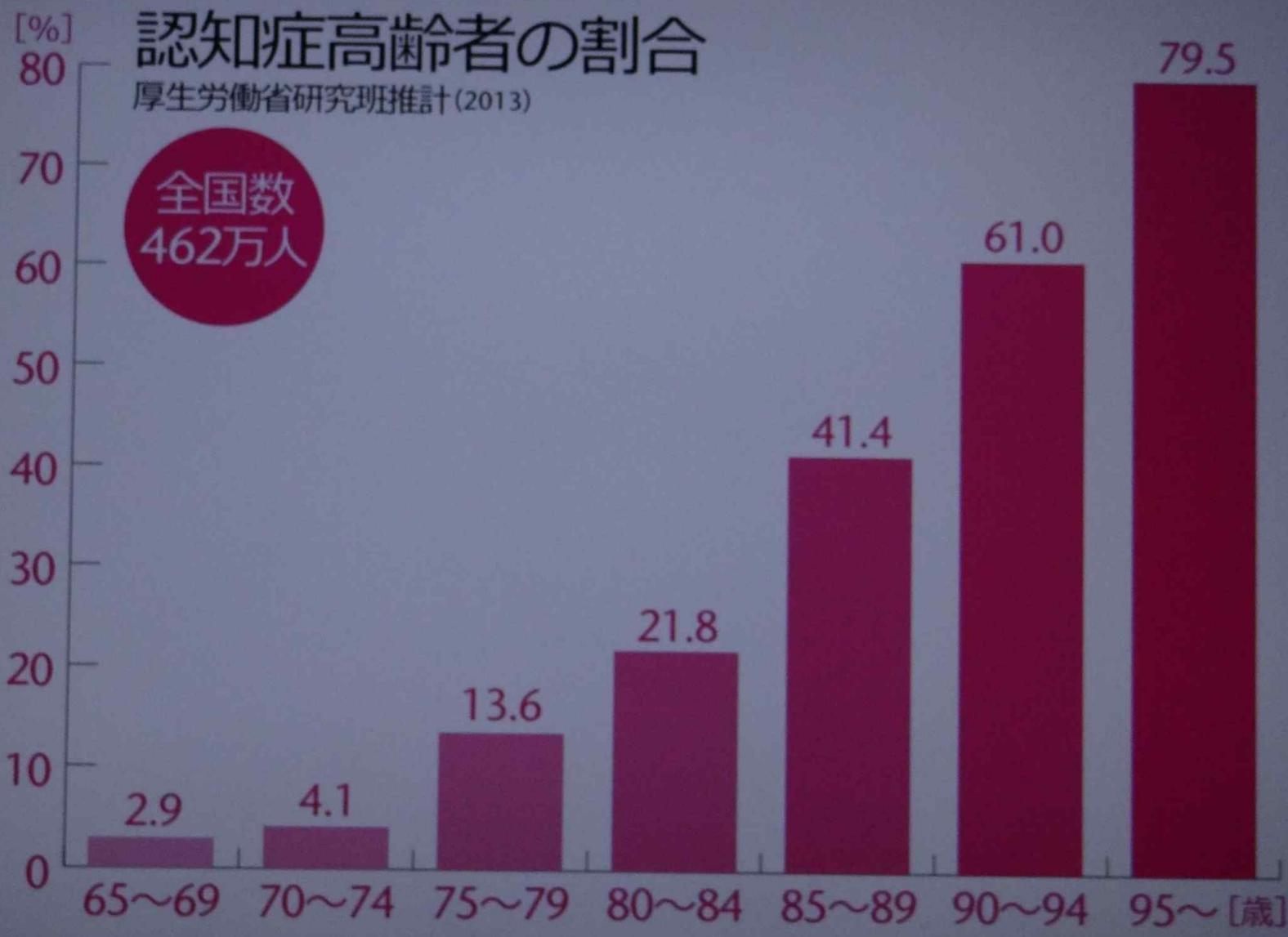
(注1)「一人暮らし」とは、上記の調査・推計における「単独世帯」のことを指す。

(注2)棒グラフ上の( )内は65歳以上の一人暮らし高齢者の男女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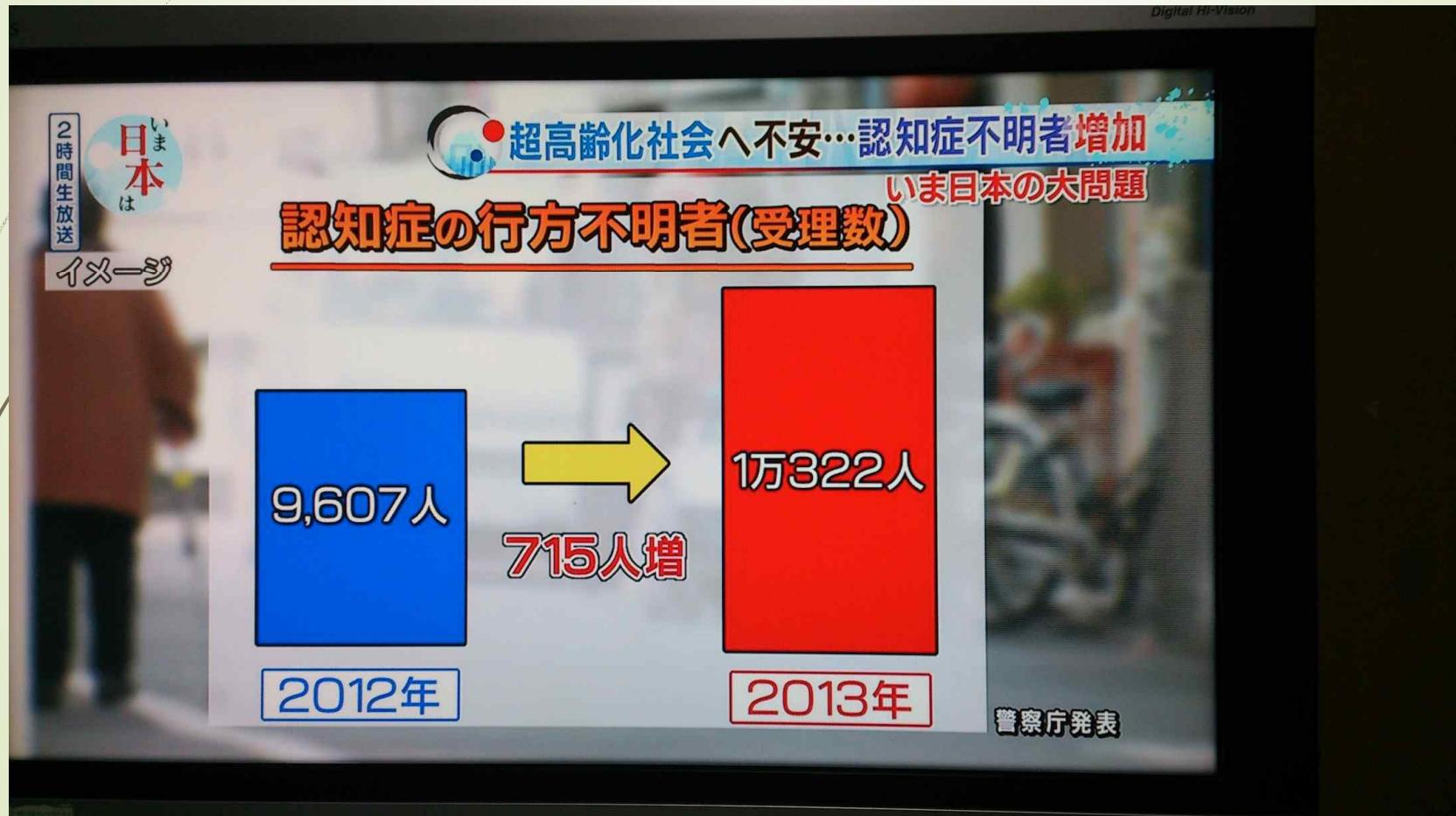
(注3)四捨五入のため合計は必ずしも一致しない。

# 인지증 고령자의 추이





# 認知症高齢者の急増



## 가족케어러의 정책상의 자리매김

- 1976: [550년대 전기 경제대책]에서 가족기능의 강화 및 거뮤니티케어의 추진, 재가 복지서비스의 중점화를 강조
- 1986년: [장수사회대책대강]에서 가족의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가능한 지역에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가서비스의 체계적정비를 기본방침으로
- 1989년: 후생성사무차관의 사적 간담회인 개호검토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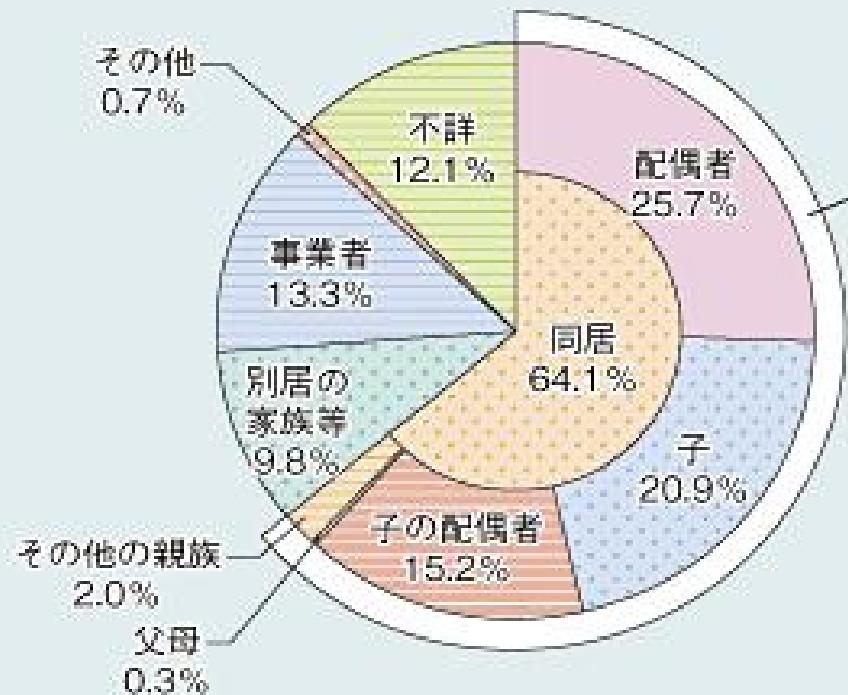
12월에 [개호대책검토회보고서]를 정리발표. **케어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첫 보고서.** 가족케어러에 대해 [무리를 거듭하는 가족케어]에서 [재가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한 가족케어]로의 발상전환을 기본적 생각으로 제시

1994년: [21세기 복지비전-소자, 고령사회를 향하여-]가 발표되고, 여기서의 제언에 따라 [신골드플랜]이 책정됨. 포인트는 개인 및 가정의 역할과 함께 비영리단체, 기업등 자조, 자립, 公助、共助이 잘 조화를 이룬 중층적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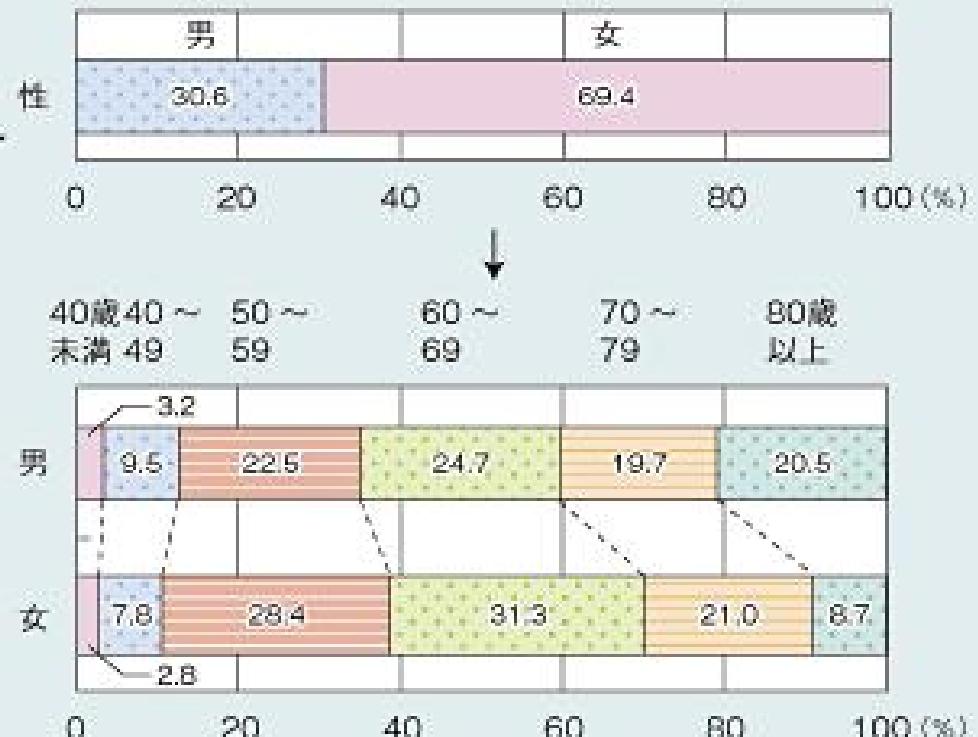
1994년 : 후생사무차관 사적연구회인 [고령자케어 자립지원시스템연구회]가 [새로운 고령자케어시스템의 구축을 향하여]를 제출. 포인트 종래의 가족케어 중심에서 가족, 여성문제, 국민경제등의 관점에서 분석후, [사회보험방식]에 기초한 신케어시스템구축을 제언. 여기서 **가족케어의 평가에 있어서는 [케어관련 지출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한 현금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 이후 각종 심의회 등에서 가족에 대한 현금지급에 대한 제안이 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피요양자와 요양자의 관계

출전: 2012년도판 고령사회백서



資料：厚生労働省「国民生活基礎調査」(平成22年)



(注) 主な介護者の年齢不詳の者を含まない。

主に家族（とりわけ女性）が介護者となっており、「老老介護」も相当数存在

要介護者等からみた主な介護者の続柄をみると、6割以上が同居している人が主な介護者となっている。その主な内訳をみると、配偶者が25.7%、子が20.9%、子の配偶者が15.2%となっている。また、性別にみると、**男性が30.6%、女性が69.4%**と女性が多くなっている。

要介護者等と同居している主な**介護者の年齢**についてみると、**男性では64.9%、女性では61.0%が60歳以上**であり、また、いわゆる「老老介護」ケースも相当数存在している



氣流



昨日からパソコンを始めた。まさに六十の手習いである。もとはと言えば、米国に住む娘に「電子メールで連絡を取りたいから」と尻をたたかれての一大決心だつた。

まずは、デスクトップ一式をそろえた。専門書を何冊かい求めたが、初めて

が重く感じられる場合もあるだろう。

老介護」の実態に触れた。

## 老老介護の実態 理解した施策を

研究員 黄 京性 40

(東京都江戸川区)  
佐賀県鹿島市で今年五

月、夫が車いすの妻とともに

に自宅近くの川へ飛び込

み、妻は死亡、軽傷だった

夫は承諾殺人罪で起訴され

る無理心中事件があつた。

夫婦はいずれも八十歳

代。一人で歩けない妻は介

護保険の要介護4の認定を

受け、妻を在宅介護してい

た夫も要介護1だった。ヘルパーの派遣も受けていた

が、夫は将来を悲観した。

一緒に死のうと思った」と

供述していたという。「老

老介護」の悲劇と言うしか

ない。

私は介護保険制度がス

トする前に、高齢者介護

に関する調査に参加し、「老老介護」の実態に触れた。  
介護する高齢者の訴えは「自分の人生は介護にさざげるしかない」という绝望感に満ちていたという点が強く印象として残っている。

国民の関心は、介護を受ける側に向ぎやすく、介護する人の健康や生活について見過ごされがちだ。

むろん、介護保険の導入

により、介護する人の負担はある程度軽減されてしま

親のありがたさ

主婦 山本 智子 31

(神奈川県藤沢市)

長男が満一歳になった。

妊娠中の一年間よりも、

生まれてからの方があつと

いう間だった。公園の紅葉やクリスマス、桜吹雪に海

水浴。私が三十二回も経験し

てき季節の移り変わり

も、長男にはすべてが「初

めての体験」だと思うと、

当然、読

的な時間

なってし

な言い方

自分を犠

## 케어살인 및 자살

### ▶ 케어살인의 정의

「케어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60세이상 동시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조건에 일치한 경우」 湯原悅子 교수

1998-2009년까지 신문기사데이터베이스분석에 케어관련 살인사건

12년간에 454건, 사망자 461명.(동 교수집계)

케어/간호 피로가 동기가 된 살인사건(경찰청 )

	2007년	2010년	2011년
	30건	57건	54건

케어살인조사(2011 동교수)

피해자의 73.5%가 여성, 가해자의 73.2%가 남성이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노노케어」 58%

살인이 54.3%, 자살은 15.9%, 신체적 학대의 결과로 보여지는 살해치사13.4%,

본인의 승낙 및 촉탁에 의한 살인 10.6%



일본의 케어살인 관련법률 및 대책  
-인지증고령자 시책 및 고령자 학대방지법-

## 일본의 인지증 대책의 흐름

- 昭和38年 (1963) 老人福祉法制定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創設等)
- 昭和57年 (1982) 老人保健法制定 (疾病予防や健康作り)
- 昭和59年 (1984) 認知症ケアに関する研修事業開始
- 昭和62年 (1987) 「厚生省痴呆性老人対策推進本部」報告書
- 平成元年 (1989) 老人性痴呆疾患センター開始
- 平成4年 (1992) 認知症対応型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開始
- 平成6年 (1994) 「痴呆性老人対策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 平成9年 (1997) 認知症対応型グループホーム開始
- 平成12年 (2000) 介護保険法制定
- 平成15年 (2003) 「高齢者介護研究会」報告書発表
- 平成16年 (2004) 痴呆→認知症へ用語の変更
- 平成17年 (2005) 認知症サポーター養成研修開始  
認知症サポート医養成研修開始
- 平成18年 (2006) かかりつけ医認知症対応力向上研修開始
- 平成20年 (2008) 「認知症の医療と生活の質を高める緊急プロジェクト」報告書
- 平成24年 (2012) 「認知症施策推進5ヵ年計画」(オレンジプラン)策定

# 「오렌지 플랜」

## 인지증 시책 5개년 계획 2012년9월 발표

종래의 병원, 시설 중심의 인지증 시책을 가능한 재택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의료와 케어 및 보호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위한 시스템구축을 위한 7개 항목의 구체안을 제시한 것

1. 인지증 케어 패스의 작성: 표준적인 인지증 케어패스(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제공의 흐름)의 작성·보급을 위하여 2012-13년도에 조사 및 연구, 2013년도-14년도에 각 시정촌에서 케어패스 작성을 추진하고, 2015년도 이후 개호보험사업계획(시정촌)에 반영하도록 함

2. 조기진단·조기대응: 인지증의 조기진단 및 대응을 위해,

① 주치의 인지증대응력 향상 연수 수강자수를 2017년도까지 5만명을 목표로 한다.

→ 고령자 600명(인지증고령자 약60명)에 1명의 주치의가 수강하는 셈.

② 인지증 서포트의(医) 양성연수 수강자수: 17년도말까지 누계 4000명 목표

(전국 10만개소의 일반진료소 25개소당 1명의 서포트의 배치 목표)

③ 인지증 초기 집중지원팀의 설치: 지역포괄지원센터등에 배치하여 가정방문에 의한 어세스먼트 및 가족지원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

2013년도에는 전국 10개소, 2014년도에는 20개소에서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2015년도 이후는 모델사업의 실시상황등을 검증하고 전국보급을 위한 제도화를 검토

④ 조기진단의료기관의 정비: 인지증의 조기진단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17년도까지 500개소 정비.

인지증 질환의료센터 포함한 2차의료권에 1개소 이상의 목표

⑤ 지역케어회의의 보급 및 정착: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다직종 협동으로 실시되는 것

「지역케어회의」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하여 2012년도에 「지역케어회의 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역케어회의 다직종 협동추진등 사업」에 의한 「지역케어회의」이 추진을 실시. 2015년도 이후 모든 시정촌에서 실시하도록 함

### 3. 지역에서의 생활을 지지하는 의료서비스의 구축

#### 1) 「인지증 약물치료가이드라인」의 책정

- 2012년도에 가이드라인의 책정
- 2013년도 이후 의사용 연수등으로 활용

#### 2) 정신과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상태의 명확화

- 2012년도부터 조사 실시

#### 3) 「퇴원지원 · 지역연계 크리티컬 패스(퇴원을 위한 진료계획)」의 작성

- 2012년도 크리티컬 패스의 작성
- 2013년도-2014년도 크리티컬 패스에 관한 의료종사자를 위한 연수회등을 통하여 보급  
아울러 퇴원예정자에게 필요시되는 케어서비스의 정비를 개호보험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 2015년도 이후 개호보험사업계획에 반영

### 4. 지역에서의 생활을 지지하는 케어서비스의 구축

인지증의 고령자가 생활에 익숙해 있는 지역에서 가능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케어서비스의 정비를 추진

### 5.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및 가족지원의 강화

#### 1) 「인지증지역지원추진원」의 증원: 2012년도 말 175명을 2017년도말 700명으로 5개 중학교구당 1명배치(계 2,200명), 우선 5년간에 700명배치

\* 시정촌 실정에 맞게 인지증지역지원추진원을 중심으로 인지증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각종사업을 실시

#### 2) 인지증 서포터: 2012년도말 예상 350만명을 2017년도말 600만명으로 증원

#### 3) 시민후견인의 육성 및 지원조직 체제의 정비:

2012년도 40개소에서 시정촌에서 장래 1,700의 모든 시정촌의 체제정비를 꾀함

#### 4) 인지증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2012년도 조사 및 연구실시, 25년도 이후 「인지증 카페」의 보급등

## 인지증 서포터

「인지증서포터」 양성강좌를 수강하므로써 서포터가 됨  
인지증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표식으로 오렌지색 반지를 낌.

역할은 인지증에 관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편견을 갖지 않고 인지증자 및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보며 자신의 가능한 범위에서 활동하는 「応援者」



# 인지증 카페



## 認知症カフェ 地域に根ざせ

### 役割と課題 フォーラムで議論

「フォーラム 認知症カフェを考える2014」（朝日新聞社、朝日新聞厚生文化事業団主催）が7月26日、大阪市西区の大坂YMCA会館であり、約420人が参加した。認知症の人と家族が交流する「認知症カフェ」に期待される役割と課題をめぐり、専門家が議論を交わした。

### 介護支援への案内役

認知症カフェは認知症の人や家族が集い、ソーシャルワーカー・看護師、医師ら専門職が相談に乗ることもある。厚生労働省によると、全国に200以上あり、国がまとめた認知症に対する施策、「オレンジプラン」でも普及をうたっている。

フォーラムでは東京や京都などの実例が報告された。

東京都国立市で12年3月に始まつた「国立市認知症カフェ」は月1回、日曜日に市内の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で開く。お茶を飲みながら約2時間、看護師らの講話を聞く。主宰するのは、地元で在宅医療や介護を取り組む医療法人社団「つくり会」理事長の新田国夫さん(69)。市役所などで家族会を開いていたが、「平日は参加できない」という声に応えカフェを開いた。「認

知症の人が住み続けられる地域をつくりたい。その支えに

域でできるだけ住み続ける効果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と、認知症カフェの「水先案

エ」と新田さん。認知症にはまだ根強い偏見がある。「私は認

知症です」と隠さず言える地域をめざすため、あえて名称に「認知症」とつけた。

京都府伏見区の「カフェdeおれんじサロン」も月1回、日曜日に開く。カフェを主宰し、介護施設を運営する社会福祉法人「同和園」常務理事の橋本武也さん(54)は

「早期の認知症の段階からカフェに来てもらえば、本人や家族に長く関わることができる。病気の進行に合わせ必ずに介護サービスにつなぎ、地域でできるだけ住み続ける効果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と、認知症カフェの「水先案内人」の役割を強調した。

人材・資金・周知が必要

◆認知症カフェに必要な要素七つ（鈴木和代さんの講演から）  
 ①認知症の人が、病気であることを意識せずに過ごせる。  
 ②認知症の人にとって、自分の役割がある。  
 ③認知症の人と家族が社会つながることができること。  
 ④認知症の人と家族が社会に対して、自分の弱みを知つてもらえていて、かつそれを受け入れてもらえる。  
 ⑤認知症の人とその家族と一緒に参加でき、それ以外の人も参加・交流できる。  
 ⑥どんな人も自分のペースに合わせて参加できる。  
 ⑦「人」がつながることを可能にするしくみがある。

本人や家族が悩みを語り合う。共感が心をつなげる  
|| 京都市伏見区の「カフェdeおれんじサロン」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2003年11月成立

### 상기법에 근거한 대응상황등에 관한 조사 결과

年度	養介護施設従事者에 의한 것		養護者에 의한 것	
	相談・通報件数	虐待判断件数	相談・通報件数	虐待判断件数
2006年	273件		18,393件	12,575件
2012年	506件	96件	25,315件	16,668件

양개호시설종사자(養介護施設従事者): 介護老人福祉施設等、養介護施設 또는 居宅서비스事業等, 養介護事業業務에 종사하는 자

양호자(養護者): 高齢者를 돌보고 있는 家族、親族、同居人等

- 養介護施設従事者等에 의한 高齡者虐待  
身体的虐待가 70.8%、다음으로 心理的虐待가 36.5%、  
被虐待高齡者は 女性이 74.7%를 차지하고、  
年齢은 80歳代가 42.5%이었다。
- 養護者에 의한 高齡者虐待  
身体的虐待가 63.4%、다음으로 心理的虐待가 39.0%、  
被虐待高齡者は、女性が 76.5%、年齢は 80歳代が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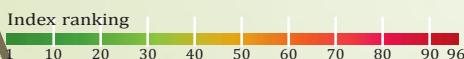
## 養護者에 의한 虐待의 特徵

- 虐待者와의 同居의 有無: 同居가 85.5%、
  - 世帯構成: 「未婚の子と同一世帯」가 37.3%로 가장 많고、
  - 既婚의 자녀를 합하면 63.7%가 자녀와 동일세대
- 
- 가족관계는 「아들」이 42.6%로 가장 많고、  
「남편」16.9%、「딸」15.6%의 순으로 뒤이음

# 한국 고령자복지수준의 현주소

**Table 1: Global AgeWatch Index overall rankings**

1. Norway	21. Spain	41. Romania	61. Tajikistan	81. Ghana
2. Sweden	22. Chile	42. Peru	62. Dominican Republic	82. Ukraine
3. Switzerland	23. Uruguay	43. Sri Lanka	63. Guatemala	83. Morocco
4. Canada	24. Panama	44. Philippines	64. Belarus	84. Lao PDR
5. Germany	25. Czech Republic	45. Vietnam	65. Russia	85. Nigeria
6. Netherlands	26. Costa Rica	46. Hungary	66. Paraguay	86. Rwanda
7. Iceland	27. Belgium	47. Slovakia	67. Croatia	87. Iraq
8. USA	28. Georgia	48. China	68. Montenegro	88. Zambia
9. Japan	29. Slovenia	49. Kyrgyzstan	69. India	89. Uganda
10. New Zealand	30. Mexico	50. South Korea	70. Nepal	90. Jordan
11. United Kingdom	31. Argentina	51. Bolivia	71. Indonesia	91. Pakistan
12. Denmark	32. Poland	52. Colombia	72. Mongolia	92. Tanzania
13. Australia	33. Ecuador	53. Albania	73. Greece	93. Malawi
14. Austria	34. Cyprus	54. Nicaragua	74. Moldova	94. West Bank and Gaza
15. Finland	35. Latvia	55. Malta	75. Honduras	95. Mozambique
16. France	36. Thailand	56. Bulgaria	76. Venezuela	96. Afghanistan
17. Ireland	37. Portugal	57. El Salvador	77. Turkey	
18. Israel	38. Mauritius	58. Brazil	78. Serbia	
19. Luxembourg	39. Italy	59. Bangladesh	79. Cambodia	
20. Estonia	40. Armenia	60. Lithuania	80. South Africa	



## 한국 고령자의 빈곤

	전체	소득	건강
Japan	9	31	1
Cyprus	34	46	24
Thailand	36	58	41
Sri Lanka	43	79	54
Philippines	44	73	76
Vietnam	45	70	36
China	48	72	58
Kyrgyzstan	49	54	83
South Korea	50	80	42
Bangladesh	59	75	71
Tajikistan	61	57	80
India	69	71	87
Nepal	70	69	79
Indonesia	71	86	70
Mongolia	72	36	93
Turkey	77	33	52
Cambodia	79	89	51
Lao PDR	84	85	82
Iraq	87	62	75
Jordan	90	59	67
Pakistan	91	95	78
West Bank and Gaza	94	82	73

South Korea (50) – another country with strong economic growth and significant overall national wealth – has a lower income security ranking (80) than might be expected.



DEVELOPMENT AREAS	
DCP CAR STAY SERVICES	
SUPPORT LEAFLET - INDIVIDUAL	- CORPORATE
DATA COLLECTION	
ACTIVITY w/c:	
CLIENTS SUPPORTED	
CLIENT VISITS TO OFFICE	0
STAFF VISITS TO CLIENTS	0
ASSESSMENTS DONE BY STAFF → CLIENT	-
MEETINGS WITH CURRENT VOLUNTEERS	-
MEETINGS WITH NEW VOL.	0
NEW VOL'S RECRUTED	0
VOL VISITS TO CLIENTS	0
VOL INTERVENTIONS/HOURS	0
VOLUNTEERS SUPPORTED / TRAINING	-
IN-HOUSE TRAINING'S	-
ITS SERVICE/INTS	-
FUNDRAISING	
✓ VILLAGE HONEY	RAFFLE
WITTHOUSE	MONMOUTH & TINTERN
PALMS FARM	WILLOUGHBY
CANTERBURY	TRADITION
PARISHES CHURCHILL	CITY
SAXON WOODS	300
ACERS UK	PN
	PG
	AP. £30.00



2014/9/2 21:55

# Bihoro Safrankai



**地域包括ケアのいま 名寄の挑戦**

第三回地元物語  
認知症の80代独居高齢者の  
ようなサポートが必要かな。  
7月1旬に名寄市が初めて開いた地場ケア会議は、研修座  
の事例検討会。ケアマネジャー（介護支援専門員）が案例を挙げ、説明すると、社会福祉士や保健師が次々と発言しま  
すか。「金錢は誰が管理しているのですか？」名寄市大丈夫ですか  
か。会場は90人の参加者の熱気があふれました。

**専門職集め探る**  
福祉に携わる多くの専門職がそれぞれの知識から課題や解決策を見いだし、幅広い視点で考え方を探る福祉関係者がつくる「地場地図」アマナメント研究所でも、この手法を用いた研究会を開いている。弁護士も出席して、「虐待管理体制を活用した財産管理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の意見を述べた。名寄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橋本圭（主幹50）は、「事例検討会の実現には、超高新区が必要なサービスのあり方や、さまざまな職種の参加を探り、行政の施策に反映させる。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を構築する上で、アシテを実現する上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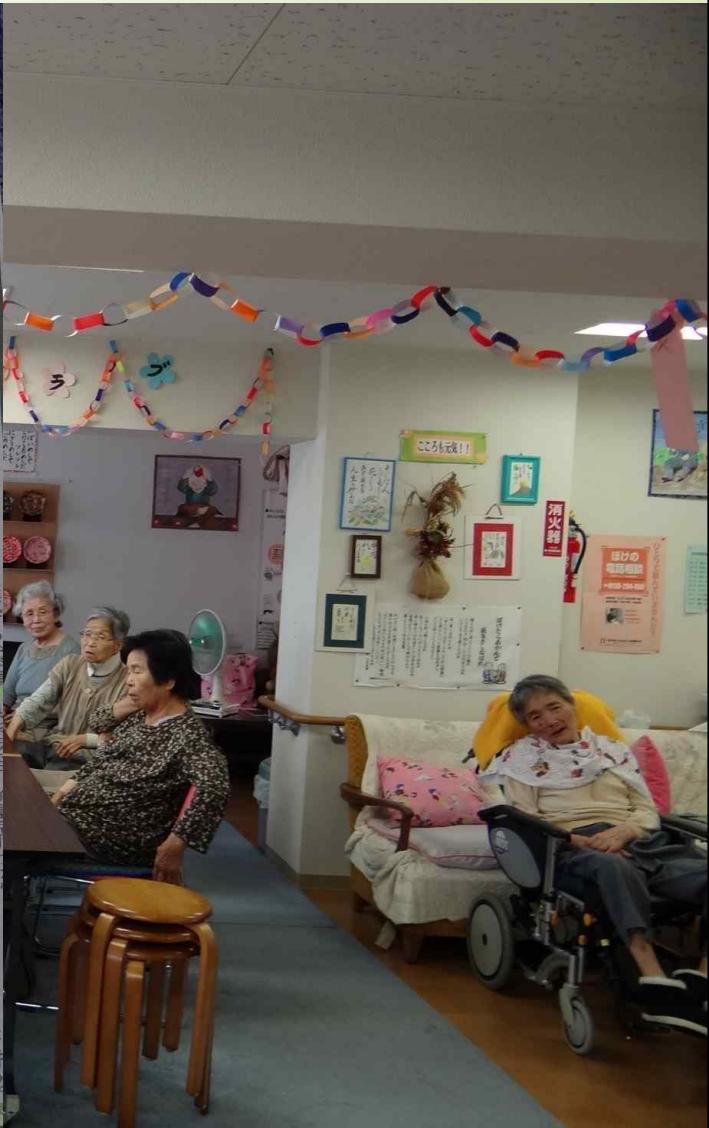
（事例検討会＝7月30日、駅前交番「よろこびの時間」が集まつて介護現場の課題と解決策を考えた名寄市の）

**家族の負担減 枠超えて支え合う場を**

要介護者が一緒に時間を過ごす施設では見られない光景だ。

**住民同士が協力**  
家族の負担は、住民同士が協力することで生まれた新たな「ライセービス」によって分担される。結成当初の会員数は41人だったが今では市民ランティアも参加し、120人に増えた。町が無償で貸す町営住宅の集会室が活動拠点で、昼食代500円（介護費200円）が利用料。割合を示す名寄市の高齢化率車いす利用者は、町社会福祉協議会が自用者ではなくまで無料で送迎している。

（貯金には元保健師や「ぐだぐだ」つた親族の介護を経験した人が車いす利用者は、町社会福祉協議会が自用者ではなくまで無料で送迎している。月1回、介護方法やサービス情報を会員が紹介する「サフラン通信」も発行。05年からは、認知症高齢者を占める）



# 인지증고령자 전문직의 양성의 필요성



編集(E) 表示(V) お気に入り(A) ツール(T) ヘルプ(H)

Career Areas

Bradford Dementia Group

Education

Dementia Care Mapping

International Contacts

Using Dementia Care Mapping in Different Settings

Dementia Care Mapping Data Sheets

Research

Training

Practice Development Consultancy

News and Events

Dementia Care Mapping by Bradford Dementia Group

Prof. Murna Downs  
Head of Bradford Dementia Group

UNIVERSITY OF BRADFORD

Dementia Care Mapping

Dementia Care Mapping™ (DCM™) is a set of observational tools developed by Bradford Dementia Group, designed to evaluate quality of ca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rson living with dementia.

SAMSUNG

Windows 8 taskbar icons: File Explorer, Control Panel, Start, Help & Support, Microsoft Edge, Mail, Photos, OneDrive, Internet Explorer, YouTube, Search, and Print.

# 日本に介護者支援法を実現する市民の会



Carers (Recognition and Services) Act 1995

Care  
Act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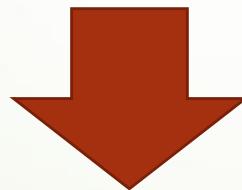
- ▶ 介護者支援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仮称) 政策大綱 (素案)
- ▶ 2009年に 조직된 市民法制局社会保障改革研究会 (이 研究会로부터 日本케어러연맹이 탄생) 에서 작성한 것을 일본케어러연맹이 계승하여 제안을 계속함

1. 케어러의 케어능력 및 케어지속능력에 관한 어세스먼트 청구권을 인정
2. 지자체에는 케어러의 청구에 대해 어세스먼트 실시를 의무시함
3. 케어러가 원하면, 피케어자와 별개 장소에서 니드어세스먼트를 받을 기회 및 피케어자 담당자와는 별도의 소셜워커에 의한 어세스먼트의 보장

## 과제 및 제언

고유법 제정 혹은 관련법규에 대한 가족케어러지원의 성문화 및 제도 마련

- ▶ 가족부양자 및 케어자에 대한 지원책의 제도적 수정 및 보완
- ▶ 노노케어자에 대한 지원책 (특히 빈곤고령케어자에 대한 정책의 강화)
- ▶ 청년케어러에 대한 제도적 보장(직장과 케어겸업보장, 휴가, 재취업 등)
- ▶ 인지증전문가 및 전문지원인의 양성(영국의 Bradford Univ의 BSc(Hons))
- ▶ 케어러의 자발적/자주적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美幌町サフランの会)
- ▶ 고령자를 압박하는 제도개정 및 신설의 재고(케어, 보건의료, 연금 등)



케어에 있어서 유가족자의 불리를 유리로 전환하는 정책전환의 필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